

---

#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 아동이 지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

Children's Attitude and Intention of Behavior Towards Elderly

- Focused on Children's Perceived Value -

---

고은교\*, 정민숙\*\*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un-Kyo ko(12\_01@hanmail.net), Min Suk Jung(welfarej@nambu.ac.kr)

---

## 요약

본 연구는 아동의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인과관계에 주목하여, 세대공동체적 통합의 측면에서 노인  
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여 노인이 겪는 사회적 소외의 격차를 좁혀 노인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인에 대한 아동의 지각된 가치와 태도 그리고 행동의도의 관계를 규  
명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의 직·간접 경험한 노인에 대한 지각된 가치는 감정적 태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  
으며, 감정적 태도는 인지적 태도에, 인지적 태도는 행동적 태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행동적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노인 | 아동 | 지각된 가치 | 태도 | 행동 |

##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ttitude and their behavior and  
intention of behavior to increase their positive behavior towards elders so that can be solutions  
to reduce social isolation of elders. This study explains relationships between ways children  
recognize seniors, their attitudes and their intention of behavior; how they affect one another.  
Figuring it out would help to learn ways how to resolve psychological problems which elders  
suffer.

Regression analysis were also done to figure out whether chosen factors are appropriate and  
to verify the hypotheses or assumptions. To learn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t-test was  
applied. This proved that children's perceived value on elders who they experienced directly or  
indirectly has positive effect on their emotional attitude, and this emotional attitude affects their  
cognitive behavior positively which affects their behaving attitude in a positive way. Lastly,  
behaving attitude has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intention of behavior.

■ keyword : | Elders | Children | Perceived Value | Attitude | Behavior |

---

## I. 서론

과거 농경사회와는 패러다임이 전혀 다른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던져진 화두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과 인간의 감성적 소통일 것이. 박영숙(2008)에 의하면 국민통합 없이 경제성장도 없기 때문에 요즘 세계 각국은 국민 설득을 목적으로 국민통합본부를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77]. 바로 우리에게 인간의 소통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다. 인간 사이의 소통이 소중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코 사회를 벗어나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세대 간의 소통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심각한 노인소외현상과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농경시대 이후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하면서 고령화 문제와 사회·문화적 변화로 초래된 인간소의 현상은[2] 세계 어느 나라나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24.3%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면서[78] 노인소외현상의 해소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되고 있다. 여러 세대들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행동 유도는 노인소외현상의 감소를 위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 스스로의 능동적 노력과 매체에 나타나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표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나 노인에 대한 국내연구 중 대부분은 인식과 차이를 묻는 단순한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57]. 2000년 이후 발표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지각된 이미지와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노인과의 접촉 횟수, 조부모의 생존 유무,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유무[56], 조부모의 경제수준[16], 노인교육 경험유무[11][46], 노인대상 자원봉사활동[27]과 같은 개인요인, 어머니의 조부모 부양태도[56], 사회경제적 배경[49]과 같은 가정요인으로 나누어 단순동기분석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을 능동적인 존재로 본 경우는 단지 노인의 자

원봉사활동[1][27][40]요인 이외는 찾기 어려운 상태이며, 역시 단순동기분석 연구들이다. 따라서 세대공동체적 통합의 측면에서 노인소외현상의 해소를 위해 노인의 능동적, 적극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노인에 대한 태도-행동 관련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백과이어(Mc Guire)는 노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12-13세까지 형성되어 가는데 한번 형성된 인식은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형성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33]. 피아제(Piaget) 역시 인지발달이론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은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며, 타인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간다고 한다.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형성은 인지적 영향과 사회적 학습경험에 의존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아동은 직접 노인을 경험하거나 혹은 매체를 통해 노인을 경험함으로써 노인에 대해 학습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매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에게 자신의 조부모를 포함하여 직접 대면하는 노인과 매체에서 관찰되는 노인에 대해 지각된 가치를 변인으로 하여 태도와 행동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태도는 그것을 지닌 개인이 다른 개인 또는 대상들에 대해 보이는 반응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을 이끌어 내기 때문인데 아동 역시 자신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대상에게는 접근하려고 하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대상을 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73].

태도형성과 태도변화에 관한 이론들은 클라이언트의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성취하는데 유용하다는 가능성을 발견되고 있다[50].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에 적용된 사례가 미비한 태도변화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연구모델을 기초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지각된 가치, 태도, 행동의도에 관련한 측정도구들을 아동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일부 연구에서 사용된 단순동기분석에서 나아가 대상자의 심리적인 행동변수를 분석하여 대상자의 가치와 태도가 향후 노인에 대한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노인소외현상 감소를

위한 노인들의 능동적 이미지 관리 노력과 매체의 긍정적인 이미지 표현 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세대공동체적 통합의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여 노인이 겪는 사회적 소외의 격차를 좁혀 노인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지각된 가치를 알아본다. 둘째, 아동의 지각된 가치와 감정적 태도의 관계를 알아본다. 셋째, 아동의 감정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의 관계를 알아본다. 넷째, 아동의 인지적 태도가 행동적 태도의 관계를 알아본다. 다섯째, 아동의 행동적 태도와 행동의도의 관계를 알아본다. 여섯째, 집단 간의 지각된 가치, 태도, 행동의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 II. 이론적 논의

### 1. 이론적 배경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 1960년대에 태도와 행동 간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나타났다. 일관성에 관련한 이론으로 태도-행동 일관론과 태도-행동 무관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태도-행동 일관론이란 한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 감정, 의도와 그 대상에 대한 행동의 양식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태도를 알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태도를 행동의 예측에 유일하고, 강력한 변수로 보는 견해이다[62]. 카츠(Katz)는 ‘태도는 행위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욕구를 달성하게 하는 도구적 기능, 자기 방어적 기능, 자기표현의 기능, 환경 인식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고, 태도(Attitude)라는 개념은 토마스(Thomas, 1918) 등이 처음으로 행동경향의 설명개념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73]. 올포트(Allport, 1967)는 태도의 정의를 정리하고자 시도하였으며, ‘태도란 경험을 통해서 체계화된 심리적 또는 신경 생리적인 준비 상태이며 생활체가 관련을 맺는 모든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생활 자체의 행동에 방향을 부여하거나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태도를 경험의 산

물로 정립하였다[67]. 이는 이후의 태도에 관한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태도와 개인성(Personality)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41]. 태도와 행동의 인과관계가 어떤 것이든지 이 양자 간에는 충분한 관계가 있으며, 태도자체에 원인이 있거나 외부적 요건에 따라 태도와 행동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태도변화이론은 태도의 구성요소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과정으로 보는 균형이론과 학습의 과정으로 보는 학습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태도변화를 위한 학습방법으로 고전적 조건화, 행동적 접근(강화), 인간모델링(관찰), 인지적 접근(전달내용) 등이 있다. 인지적 부조화이론이란 인지적 부조화 이론은 지식, 의견, 신념 등의 인지적 요소에 따라 행동하려는 심리적 경향과 관련하여 설정되어 있는데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하면 태도인식들 간의 상호모순 때문에 부조화가 발생하고, 감정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하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론이다[73]. 페스팅거(Festinger, 1957)는 외적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내적 상태 즉 태도의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조화추구와 부조화 기피의 시도로 태도변화가 달성된다는 것이다[69]. 인지적 부조화 이론은 균형이론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하나 태도와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차이가 있다. 인지적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행동적·인지적 요소변화로 행동과 신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행동을 먼저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둘째, 환경적·인지적 요소변화로 환경을 바꾸거나 환경적 인지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인지적 요소변화로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의 발견으로 기존부조화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73].

가치는 태도와 행동과정 저변에 깔려있는 바람직한 최종상태에 관한 일반적인 신념이며, 근본적인 동기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9]. 개개인의 지각된 가치란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으로 자신이 속한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는 사회적 인지 유형의 하나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이거나 상황적 요인들과 같은 요인 보다 가장 근본적이며 지속적인 영향요인이다[68][74]. 태도는 흔히 가치와 함

게 언급되며, 가치는 사회적으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사회태도라고 하고 이런 가치들에 반영된 행동은 각기 다르게 선택되고 보상된다[73]. 태도란 규정된 종류의 행동이나 주의에 대한 준비 상태이며, 개인의 행동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을 수정하는 내적 상태로 가치와 태도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견해는 태도가 쉽게 변화되는 것에서부터 그렇지 않는 것에 이르기 까지 점진적으로 결정된다고 크래츠홀(Krathwohl) 등이 주장하였다[75].

## 2. 선행연구

지각된 가치와 만족도, 태도, 행동의도 관계에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가 만족도, 태도,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4][5][8][9][18][19][23][25][28][31][38][42][43][51].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태도와 행동 간의 관련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6][7][13][24][29][45][52]이 태도와 행동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도 받지만 태도가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으로 알려져 있다[50].

구자순(1988)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국내연구가 1975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인식과 차이를 묻는 단순한 연구들로 태도와 행동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57]. 2000년 이후 발표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지각된 이미지와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노인과의 접촉 횟수, 조부모의 생존 유무,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유무[56], 조부모의 경제수준[16], 노인의 자원봉사활동[1][27][40] 등과 같은 노인관련요인, 노인교육 경험유무[11][47], 노인대상 자원봉사활동[27]과 같은 개인요인, 어머니의 조부모 부양태도[56], 사회경제적 배경[49]과 같은 가정요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조부모 부양행동과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에 따라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56]으로, 조부모의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이 좋을수록 청소년기 손자녀는 조부모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7], 노인에 대한 인식을 보면 조부모와의 친밀감과 같

은 질적인 측면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결과는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21]. 한편 노인에 대한 태도·인식관련 연구를 대상 별로 보면 주로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11][14][22][30][37][47][49][65], 직장인[54], 청소년[2][16][17][20][54][56][65][66], 아동[12][55], 유아[1][33], 노인[27]으로 한 연구와 차이를 비교한 연구로는 지역별 비교연구[16][55]와 세대별 비교 연구[20] 그리고 국가별 아동의 비교[48] 등이 있다.

노인에 대한 많은 태도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개념과 측정의 문제로 태도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과 측정방법의 혼용을 들 수 있다. 태도의 감정적 요소, 인지적 요소, 행동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측정되고 있을 뿐 노인에 대한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개입의 변수를 간과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 간의 규명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행동을 형성하는데 인식이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향후 인식과 행동의 개념이 혼용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도의 내현적 반응은 태도의 외현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피시바인(Fishbein, 1967)의 주장[70]을 받아들여 노인에 대한 태도는 감정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를 합쳐서 규정하고, 노인에 대한 행동은 행동적 태도와 행동의도를 합하여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태도-행동 일관론을 지지하며, 인지적 부조화이론에 근거하여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지각된 가치, 태도, 행동의 측정변수들을 수정·보완하여 태도와 행동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1.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4-6학년 중 비수급권 대상은 사립초등학교 학생 238명, 수급권 대상은 공립초등학교 학생 14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 추출방법은 수급권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비수급권 학생과 수급권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 두 집단의 개인요인·가족요인·사회요인이 매우 상이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에 대한 두 집단의 지각한 가치 역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1.2 자료수집

사립학교 1개교는 담임교사의 협조를 구해 실시하였다. 공립학교 2개교, 방과 후 공부방 3곳은 각각 학교사회복지사와 프로그램 진행교사의 도움을 받아 수급권 학생에게 실시하였다. 대상 학교와 방과 후 공부방은 편의 추출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설문지는 직접 방문하여 배부·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2008년 7월 14일에서 23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여 회수한 질문지 총 379부(비수급권 238부, 수급권 141부) 중 설문응답이 일관성이 없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 1부를 제외한 모든 설문지 378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제외된 설문지가 1부로 다른 연구에 비해 매우 적은 이유는 각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때문으로 사료된다. 자료수집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자료수집 실태

구분		내용
조사 기간	사립초등학생	2008. 7. 14 ~ 2008. 7. 16
	수급권학생	2008. 7. 18 ~ 2008. 7. 23
표본크기	379부(비수급권 238부, 수급권 141부)	
회수표본	379부	
유효표본	378부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 2.1 변수의 조작적 정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지각된 가치 요인이란 아동이 직접·간접적으로 경험한 노인에 대하여 지각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첫째, 직접경험에 의한 지각된 가치는

대상을 대면하여 지각된 가치인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자신의 조부모를 포함한 노인들을 직접 접촉함으로써 지각된 가치를 의미한다. 둘째, 간접경험에 의한 지각된 가치는 비대면적 관찰을 통한 지각된 가치인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노인을 관찰하면서 지각된 가치를 의미한다.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태도요인이란 노인에 대해 감정적 측면, 인지적 측면, 행동적 측면의 태도를 의미한다. 첫째, 감정적 태도는 개인의 관점에서 대상의 좋고 나쁨에 대한 정도의 표출인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노인에 대한 느낌이나 정서를 의미한다. 둘째, 인지적 태도는 대상에 대한 지식, 생각, 신념인데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경험으로 얻어진 아동의 신념이다. 셋째, 행동적 태도는 대상에 대한 어떤 종류의 행동에 대한 경향인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대면하는 노인에게 행동하려는 마음가짐이다.

태도요인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인 행동의도 요인은 노인에 대한 행동의도로 노인에 대한 행동에 관련된 생각인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대면하는 노인에 대해 행동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 2.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연구 목적에 맞도록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노인에 대한 지각된 가치, 태도, 행동의도, 인구통계적 변수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는데 직접 경험한 노인과 간접 경험한 노인에 대한 지각된 가치는 동일한 설문을 사용하여 각각 12문항 씩 총 2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태도는 감정적·인지적·행동적 태도 23문항, 행동의도 항목은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 항목은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총 57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중 노인에 대한 지각된 가치, 태도, 행동의도 측정항목 53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 ‘보통이다’를 3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형식의 비율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항목 4문항은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설문구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요인		개념	하위요인	기본 개념	본 연구에서의 개념
지각된 가치	직접 경험	대면 접촉을 통한 경험	관계적 가치	관계적 가치	아동의 대면 접촉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가치
			개인적 가치	대상의 개인특성에 따른 가치	아동의 대면 접촉을 통한 노인개인특성에 따른 가치
	간접 경험	비대면 경험을 통한 경험	관계적 가치	관계적 가치	아동의 매체에서 전달된 노인의 사회적 관계 관찰에 따른 가치
			개인적 가치	대상의 개인특성에 따른 가치	아동의 매체에서 전달된 노인개인특성 관찰에 따른 가치
태도	대상에 대한 감정적·인지적·행동적 태도	인 지 적 태도	감정적 태도	개인의 관점에서 대상의 좋고 나쁨에 대한 표현	아동의 노인에 대한 선호에 대한 표현
			심미	대상의 외적 이미지에 대한 생각	아동이 갖는 노인의 외적이미지에 대한 생각
				대상의 활동성에 대한 생각	아동이 갖는 노인의 활동성에 대한 생각
				대상의 성격에 대한 생각	아동이 갖는 노인의 성격에 대한 생각
			품위	대상의 위엄이나 기품에 대한 생각	아동이 갖는 노인의 위엄이나 기품에 대한 생각
행동적 태도	대상에 대한 어떤 종류의 행동에 대한 경향	아동이 노인에게 행동하는 경향			
행동 의도	노인행동	신체적 행동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노인을 돕는 행동	아동이 직접 몸으로 노인을 돕는 행동	
		정서적 행동	타인의 정서적 욕구충족을 돕는 행동	아동이 노인의 소외와 상실을 감소시키는 행동	

표 3. 설문지 구성

요인		하위요인	문항수	출처	
지각된 가치	직접경험	관계적 가치	6	이선자(1989), 박화정(2003), 한현지(2005)	
		개인적 가치	6		
	간접경험	관계적 가치	6		
		개인적 가치	6		
태도	대상에 대한 감정적·인지적·행동적 태도	감정적 태도	5	김은경(2003), 김문주(2006), 김복순(2006), 한정란 외(2006)	
		인 지 적 태도	심미		3
			동적		3
			정적		3
		품위	3		
행동적 태도	6				
행동 의도	노인행동	신체적 행동	3	성영신 외(1995), 최혜경 외(1998), 김지영(2001), 성규탁(2001), 김윤정 외(2001), 임미영(2002)	
		정서적 행동	3		
인구 통계			4	4	
합 계			57	57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며, 확인요인분석에 의해 요인의 적합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가설검정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AMOS 4.0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아동의 지각된 가치, 태도에 따른 행동의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로서 각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가 향후 노인에 대한 행동에 미치는 인과적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노인에 대한 아동의 지각된 가치가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설정한 모형을 바탕으로 세운 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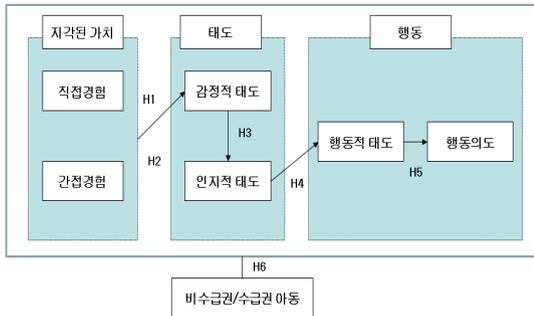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 아동의 직접 경험한 노인에 대한 지각된 가치는 감정적 태도에 정(+)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 아동의 간접 경험한 노인에 대한 지각된 가치는 감정적 태도에 정(+)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 감정적 태도는 인지적 태도에 정(+)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 인지적 태도는 행동적 태도에 정(+)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5 : 행동적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6 : 집단 간의 지각된 가치, 태도, 행동 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V. 분석결과

### 1. 인구통계적 분석

전체 분석 대상자는 378명 중 비수급권자는 236명(62.4%), 수급권자는 140명(37.0%), 무응답은 2명(0.5%)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남자 166명(43.9%), 여자 201명(53.2%), 무응답 11명(2.9%)으로 여자의 분포가 다소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통계적 분포는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인구 통계적 분포

특성	구분	N=378	비율	특성	구분	N=378	비율
성별	남자	166	45.2	조부모 동거 여부	유	199	52.6
	여자	201	53.2		무	171	45.2
	무응답	11	2.9		무응답	8	2.1
학년	4학년	138	36.5	집단	비수급권	236	62.4
	5학년	124	32.8		수급권	140	37.0
	6학년	108	28.6		무응답	2	0.5
	무응답	8	2.1				
조부모 생존 여부	유	338	89.4				
	무	32	8.5				
	무응답	8	2.1				

### 2. 신뢰도 및 타당도의 분석

설문지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지각된 가치, 태도, 행동의도에서 모두 .700이상의 수치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내용은 모두 신뢰도가 높다고 하겠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변수		문항수		Cronbach's Alpha
			초기	최종	
지각된 가치	직접 경험	관계적	6	4	.818
		개인적	6	6	.779
	간접 경험	관계적	6	6	.834
		개인적	6	6	.815
태도	감정적		5	5	.909
	인지적	심미성	3	2	.926
		동적	3	3	.892
		정적	3	3	.868
		품위	3	3	.872
행동적		6	6	.868	
행동의도			6	6	.879

요인분석을 통하여 지각된 가치의 요인들이 고유값의 허용치인 1.0을 상회해야하는데 각 설문문의 요인에 대한 고유값이 대부분 유의수준을 상회하나 간접경험 요인 중 관계적 변수의 고유값이 .989로 분석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이 .500이상인 것으로 구분하여 직접경험과 간접경험 모두 2개 요인씩으로 구분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지각된 가치의 요인분석

직접경험	관계적	개인적	간접경험	개인적	관계적
V1_2	<b>.769</b>	.087	V2_9	<b>.795</b>	.160
v1_5	<b>.712</b>	.290	V2_10	<b>.770</b>	.220
v1_3	<b>.698</b>	.240	V2_8	<b>.704</b>	.181
V1_4	<b>.673</b>	.356	V2_11	<b>.571</b>	.376
V1_6	<b>.630</b>	.470	V2_7	<b>.542</b>	.420
V1_10	.094	<b>.839</b>	V2_12	<b>.530</b>	.364
V1_9	.202	<b>.732</b>	v2_3	.269	<b>.802</b>
V1_11	.251	<b>.562</b>	V2_2	.287	<b>.745</b>
V1_12	.280	<b>.558</b>	v2_4	.331	<b>.721</b>
V1_7	.376	<b>.547</b>	V2_1	.094	<b>.613</b>
V1_8	.433	<b>.534</b>	v2_6	.504	<b>.543</b>
			V2_5	.478	<b>.534</b>
고유값	4.889	1.014	고유값	5.620	.989
%분산	44.449	9.221	%분산	46.831	8.239
%누적	44.449	53.670	%누적	46.831	55.070

표 7. 태도의 요인분석

구분	감정적	인지 (동적)	인지 (품위)	인지 (정적)	인지 (심미)
V3_1	<b>.814</b>	.144	.151	.160	.202
V3_2	<b>.761</b>	.185	.215	.239	.008
V3_3	<b>.745</b>	.291	.194	.213	.289
V3_4	<b>.696</b>	.267	.131	.217	.447
V3_5	<b>.615</b>	.187	.161	.293	.505
V3_10	.198	<b>.830</b>	.188	.199	.224
V3_9	.232	<b>.778</b>	.250	.163	.288
V3_11	.325	<b>.704</b>	.291	.263	.203
V3_16	.215	.184	<b>.844</b>	.180	.117
V3_17	.232	.243	<b>.802</b>	.095	.187
V3_15	.090	.182	<b>.776</b>	.358	.149
V3_13	.349	.251	.244	<b>.748</b>	.191
V3_14	.236	.159	.350	<b>.722</b>	.267
V3_12	.415	.394	.199	<b>.631</b>	.167
V3_6	.298	.323	.219	.193	<b>.780</b>
V3_7	.276	.364	.244	.259	<b>.750</b>
고유값	9.244	1.402	1.023	.704	.654
%분산	57.772	8.760	6.396	4.399	4.086
%누적	57.772	66.532	72.938	77.327	81.413

요인분석을 통하여 태도의 요인들이 고유값의 허용치인 1.0을 상회해야하는데 고유값이 .654로 다소 낮게 분석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이 .500이상인 것으로 구분하여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행동의 요인들이 고유값의 허용치인 1.0을 상회하며, 요인적재량이 .490이상인 것으로 구분하여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행동의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행동의 요인분석

구분	행동의도	행동적 태도
V4_2	<b>.825</b>	.208
V4_1	<b>.803</b>	.160
V4_4	<b>.777</b>	.226
V4_3	<b>.777</b>	.220
V4_5	<b>.754</b>	.340
V4_6	<b>.490</b>	.485
V4_10	.158	<b>.802</b>
V4_9	.302	<b>.784</b>
V4_11	.375	<b>.733</b>
V4_12	.019	<b>.703</b>
V4_8	.459	<b>.696</b>
V4_7	.437	<b>.633</b>
고유값	6.241	1.454
%분산	52.004	12.113
%누적	52.004	64.117

### 3. 모형적합도 분석

설계된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요인간의 상관관계 계수를 분석하였다. 상관계수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상관계수

요 인	직접 경험	간접 경험	감정 태도	인지 태도	행동 태도	행동 의도
직접경험	1					
간접경험	.496**	1				
감정태도	.705**	.381**	1			
인지태도	.755**	.432**	.755**	1		
행동태도	.612**	.343**	.681**	.681**	1	
행동의도	.638**	.358**	.716**	.623**	.629**	1

\*\* p < .01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의 적합도에서는 대체적으로 해당조건을 다소 낮게 만족하는 경향이였다. 전체적인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chi^2$  통계량,  $\chi^2$ 에 대한 유의 확률, 기초적합지수(GFI), 수정적합지수(AGFI), 평균자승의 잔차(RMR) 등의 기준을 이용한 결과  $\chi^2=2.83.3$ ,  $p=.000$ ,  $GFI=.843$ ,  $AGFI=.633$ ,  $RMR=.139$ ,  $NFI=.797$ ,  $NNFI=.668$ 의 지수로 나타났다.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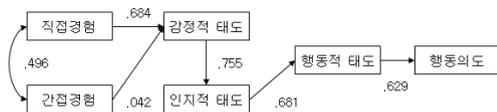


그림 2. 경로분석

### 4. 가설검정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1은 직접경험에 따른 관계적, 개인적 지각된 가치는 모두 감정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력 ( $p=.000$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F=184.917$ 이고 수정된  $R^2=.495$ 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데 직접경험은 관계보다는 개인이 더 많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설 2는 간접경험에 따른 개인적 지각된 가치는( $p=.275$ )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관계적 지각된 가치는 감정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

력( $p=.000$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 채택되었다.  $F=33.977$ 이고, 수정된  $R^2=.150$ 으로 다소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각된 가치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29] 지각된 가치가 만족도, 태도,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3-5][8][9][18][19][23][25][28] [31][42][43][51]. 가설 3은 감정적 태도는 인지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력 ( $p=.000$ )을 준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F=495.383$ 이며, 수정된  $R^2=.569$ 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가설 4는 인지적 태도의 변수 심미성( $p=.039$ ), 동적 역동성 ( $p=.001$ ), 정적 역동성( $p=.000$ ), 품위( $p=.000$ ) 모두 행동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F=80.635$ 이며 수정된  $R^2=.459$ 로 품위, 정적, 동적, 심미 순으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가설 5는 행동적 태도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력( $p=.000$ )을 준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F=245.322$ 이며, 수정된  $R^2=.394$ 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되어 온 태도와 행동 간의 관련성에 관한 최근 연구 [6][7][24][45][52][60]와 같이 태도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회귀분석 결과

가설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599	.172		3.485	.001	
	직접 경험	관계	.401	.058	.349	6.887	.000***
		개인	.480	.058	.418	8.257	.000***
2	상수	2.278	.195		11.679	.000	
	간접 경험	관계	.366	.075	.335	4.875	.000***
		개인	.082	.075	.075	1.094	.275
3	상수	.863	.126		6.833	.000	
	감정적 태도	.715	.032	.755	22.257	.000***	
4	상수	.940	.148		6.339	.000	
	인지적 태도	심미	.102	.049	.118	2.072	.039*
		동적	.172	.053	.193	3.235	.001**
		정적	.218	.053	.240	4.084	.000***
		품위	.216	.044	.249	4.867	.000***
5	상수	1.843	.135		13.621	.000	
	행동적 태도	.589	.038	.629	15.663	.000***	

p : \* < 0.1, \*\* < .05, \*\*\* < .001

가설 6은 간접경험에 의한 관계적 지각된 가치(유의 확률 .050)를 제외한 지각된 가치, 태도, 행동에 유의한 차이(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채택 되었다.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가치에 대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분석을 보면, 간접경험에 의해 지각된 관계적 가치를 제외한 직접경험에 의해 지각된 관계적 가치 및 개인적 가치, 간접경험에 의해 지각된 개인적 가치는 비수급권 아동이 수급권 아동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태도와 행동의도에 대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분석을 보면, 지각된 가치에 따른 감정적 태도, 감정적 태도에 따른 인지적 태도, 인지적 태도에 따른 행동적 태도는 비수급권 아동이 수급권 아동보다 태도에 따른 긍정적 행동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은 선행연구[10][15][34][58][63]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수급권 아동의 비수급권 아동보다 낮은 자아 존중감이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가설 6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가설 6의 분석 결과

		구분	N	M	SD	t	p	
지각된 가치	직접 경험	관계	비수급	236	3.94	.867	5.340	.000***
			수급권	140	3.46	.785		
	개인	비수급	236	3.71	.876	5.326	.000***	
		수급권	140	3.23	.770			
	간접 경험	관계	비수급	236	3.49	.956	1.968	.050
			수급권	140	3.30	.820		
개인		비수급	139	3.42	.925	3.199	.001**	
		수급권	139	3.11	.850			
태도	감정	비수급	235	3.94	1.005	3.517	.000***	
		수급권	140	3.57	.943			
	인지	비수급	235	3.79	.950	5.765	.000***	
		수급권	140	3.23	.827			
행동	행동 태도	비수급	235	3.62	.968	4.107	.000***	
		수급권	140	3.20	.947			
	행동 의도	비수급	236	4.01	.869	3.814	.000***	
		수급권	140	3.64	.953			

p : \* < 0.1, \*\* < .05, \*\*\* < .001

## V. 결론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지각된 가치에 의한 아동의

태도와 행동의도에 관한 인과관계를 알아보고, 아동이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를 지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는 노인에 대한 아동의 지각된 가치는 태도에, 그 태도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가치가 만족도, 태도,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3-5][8][9][18][19][23][25][28][31][38][42][43][5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태도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6][7][13][24][45][52][60]의 연구결과와 같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에 대한 아동의 태도와 행동의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이 노인에 대한 가치를 바람직하게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동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학습의 외적 조건은 태도학습의 목표에 따라 다양하나 인간모델링 방법이 태도학습에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 자신과 매체 속의 노인이 아동에게 긍정적으로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76].

이를 위해 개인적 측면으로 노인 스스로 외모, 건강, 정서, 경제, 사회적 관계 등 각 영역에서 자신을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외모관리를 위해서는 메이크업, 의복코디, 이미지컨설팅 등의 교육을 학습해야 하며,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요가, 무용, 게이트볼, 건강체조 등과 같은 운동프로그램, 질병예방 프로그램, 영양 및 보건 프로그램 등을 학습해야 하고, 정서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다양한 예술치료의 전문적 개입, 신앙 교육, 가족프로그램 등이 요구되고, 경제관리를 위해서는 자산관리 프로그램, 합리적 소비생활 교육 등이 요구되고,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는 컴퓨터 교육,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 노인에 의한 교육, 노인역할 찾기 교육 등의 참여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복지적 차원에서 노인대학, 시·군·구의 평생학습관, 대학 평생교육원, 노인복지관을 통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노인 역시 자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절한 서비스 요금을 지불

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집단적 측면으로 각 노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매체에서 표현되어지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감시, 평가, 요구하는 등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노인 단체의 시청자모니터링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심의위원회, 광고심의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의 등의 능동적인 참여 및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령 노인단체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노인단체의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해야 하고, 노인단체의 활동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한 은퇴노인이 참여하는 노인단체를 지원하여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단체의 매체개입 활동을 위한 재정확보 등이 요구되어 진다. 또한 정부는 노인대표의 매체참여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집단 간의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10][15][34][58][63]에서 보고 된바와 같이 수급권 아동의 비수급권 아동보다 낮은 자아존중감이 타인 대한 신뢰와 관심을 갖게 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이는 수급권 아동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아 존중감은 인간의 인지, 동기, 정서 및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아동이 환경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경험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영향을 주며 그 결과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 없이 건전한 성장과 성취는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76].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존 예술심리치료, 심리상담치료 유형의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과는 달리 우리나라 효사상을 배경으로 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독서, 영화를 매개한 아동의 시청각을 자극하여 인지, 동기, 정서 및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유용하며, 사랑스럽고, 유능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요구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교나 방과 후 교실에서 학교사회복지사를

통하여 매년 학년 별 수준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진행자의 지도자 교육,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노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아동이 노인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이 병행된다면 노인이 겪는 사회적 소외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노인의 삶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면, 요인분석에서 고유값이 1 이하인 요인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태도변화이론의 적용된 사례가 미흡한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보고자 활용하였다. 또한 수도권외의 수급권과 비수급권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지의 격차가 G도시보다 훨씬 클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을 G도시의 아동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 모두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의 태도-행동에 관한 발전된 연구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노인의 자기관리 프로그램과 매체에 대한 집단적 대응전략이 개발되고, 효율적인 아동의 자존감 향상 훈련 방안이 모색되어진다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1] 한현지, 노인자원봉사자 유무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 부모, 교사의 노인에 대한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2] 강수균, 조홍중, “노화에 대한 인식연구(I)”,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제5권, 제1호, pp.41-51, 2002.
- [3] 강중현, 이재곤, “종사원의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희생, 품질, 가치와 행동의도의 인과관계평가”,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제17권, 제1호, pp.136-142, 2007.
- [4] 강중현, 고범석, “남해안 지역 음식점들의 서비스 품질, 지각된 가치와 만족도의 평가”, 동아시아 식

- 생활학회지, 제17권, 제3호, pp.417-424, 2007.
- [5] 강종현, 고범석, “관광지에서의 음식점 서비스 질, 지각된 희생, 가치, 만족과 재방문 의도의 인과관계 평가”,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제17권, 제4호, pp.580-588, 2007.
- [6] 강종현, 고범석, “해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몰입,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의 인과효과 평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22권, 제5호, pp.521-528, 2007.
- [7] 강종현, 정향진, “육류에 대한 쾌락적 신념, 양면 가치, 주관적 규범, 태도와 육류 소비행동의 인과관계 평가”, 한국생활과학지, 제17권, 제1호, pp.141-150, 2008.
- [8] 공효순, 윤지환, 박영기, “호텔비즈니스센터 인적·물적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서비스 가치가 비즈니스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제15권, 제2호, pp.83-104, 2006.
- [9] 김광수, 원혜영, “고객의 외식가치에 대한 지각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제8권, 제1호, pp.67-85, 2004.
- [10] 김기영, 김춘경, “사회적 기술 증진 프로그램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복지학, 제16권, pp.7-36, 2003.
- [11] 김문주, 일부 대학생들의 노인 인식과 지식변화에 대한 연구 노인프로그램의 효과, 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12] 김복순, 초등학교 노인인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13] 김성숙,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제6호, pp.15-32, 2007.
- [14] 김수영, 양경미, 오현이, 김진선,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한국노년학, 제22권, 제3호, pp.21-36, 2002.
- [15] 김영란, 안민주,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인간이해, 제26권, pp.105-124, 2005.
- [16] 김영숙, “중·고등학생의 노인 이미지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제21권, 제3호, pp.75-89, 2002.
- [17] 김영호, “청소년의 노부모부양의식 실태에 관한 연구”, 울산과학대학 연구논문집, 제29권, 제2호, pp.41-59, 2002.
- [18] 김용만, 김은정, 이준원, “프로축구단의 지각된 가치가 타인추천의도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45권, 제1호, pp.449-459, 2006.
- [19] 김원인, 이은아, “소비자의 개인적 차이변수가 가치지각, 구매의도, 탐색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제21권, 제1호, pp.61-80, 2006.
- [20] 김윤정, 정선아,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간의 관계규명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제6호, pp.173-183, 2001.
- [21] 김윤정, 강인, 이창식, “청년·중년·노년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 pp.65-75, 2004.
- [22] 김은경, “조부모 관련변인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23권, 제3호, pp.63-77, 2003.
- [23] 김재휘, 김지홍, “메세지의 현출성과 수용자의 신념 및 지각된 정보가치가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8권, 제2호, pp.91-105, 2004.
- [24] 김종규,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학부모의 지식,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Journal of Food Hygiene Safety, 제19권, 제1호, pp.38-48, 2004.
- [25] 김종필, “프로축구 관중이 지각한 경기관련 요인이 서비스 가치, 구단이미지 및 관람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6권, 제6호, pp.1759-1777, 2004.
- [26] 김지영, 대학생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27] 김지형, 장윤옥,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노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제19권,

- 제5호, pp.83-99, 2001.
- [28] 나윤규, 서현석, “인터넷 쇼핑몰의 사이트 특성과 의류 소비자의 쇼핑성향이 지각된 쇼핑가치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9권, 제6호, pp.626-636, 2007.
- [29] 노용호, 김화경, “지각된 가치와 태도에 의한 산업전시박람회참관자의 행동의도”, 관광학연구, 제30권, 제6호, pp.362-379, 2006.
- [30] 박경란, 이영숙, “대학생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 한국노년학, 제21권, 제2호, pp.71-83, 2001.
- [31] 박찬규, “골프장의 지각된 고객가치와 이미지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인문·사회과학편, 제45권, 제3호, pp.335-343, 2006.
- [32] 박화정,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 : 2, 30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33] 서영숙, 정미실,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생활과학연구지, 제11권, 제1호, pp.1-8, 1996.
- [34] 석주영, 안옥희, 박인진,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특성 및 상호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1, No.6, pp.237-250, 2003.
- [35] 성규택, “어른존경 방식에 대한 탐험적 연구-동아시아에서의 조사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1권, 제2호, pp.125-139, 2001.
- [36] 성영신, 박은아, “광고에 대한 감정의 유형화:유발된 감정과 느낀 감정. 광고학 연구”, 제6권, 제2호, pp.7-49, 1995.
- [37] 안경숙, “중소도시지역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도”,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20권, 제1호, pp.1-14, 2004.
- [38] 여호근, “호텔 고객의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15권, 제2호, pp.39-58, 2001.
- [39] 연승호, 엄서호, “관광상품 가치지각에 관한 연구”, 관광학 연구, 제27권, 제4호, pp.219-234, 2004.
- [40] 원영희, 김동배, 이금룡, 한정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22권, 제2호, pp.31-146, 2002.
- [41] 이규은, “성역할 태도수업에서 인지적 접근과 행동적 접근이 태도변화와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pp.171-191, 2006.
- [42] 이미영, “인터넷 의류 쇼핑몰 점포 속성지각과 쇼핑 가치가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4권, 제1호, pp.1-11, 2005.
- [43] 이봉구, 정우철, 암범용, “음식소비관련 서비스 질, 지각된 가치, 만족, 향후 행동의도 간 관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30권, 제5호, pp.257-276, 2006.
- [44] 이선자, *노인에 대한 척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45] 이성호, 안중호, 장정주,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매개역할이 모바일 콘테츠 이용자의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정보학연구, 제16권, 제3호, pp.205-227, 2006.
- [46] 이영숙, 박경란, “노년학 교육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21권, 제3호, pp.29-41, 2002.
- [47] 이영숙, “청년기 손자녀와 조부모의 공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0권, 제3호, pp.1-16, 2000.
- [48] 이은혜, 시필트 캐롤, “한국아동과 미국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생활과학논집, 제3권, pp.173-179, 1989.
- [49] 이인수, “농촌지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도 연구” 한국노년학, 제20권, 제2호, pp.123-135, 2000.
- [50] 이인정, “태도와 행동의 변화에 관한 이론의 사회복지실천 적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28권, pp.105-131, 2005.
- [51] 이재형, “스포츠관광의 지각된 가치가 만족도 및 참가의도·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

- 체육학회지, 제25권, pp.199-210, 2005.
- [52] 이현수, "정서행동 장애학생과의 통합체육수업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태도, 관여도, 상호작용 행동의도 관계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인문·사회과학편, 제45권, 제6호, pp.483-494, 2006.
- [53] 임미영, *가족의 친밀감과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과의 관계*,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54] 임영신, 김진선, 김기순,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한국노년학, 제22권, 제1호, pp.31-46, 2002.
- [55] 장영애,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 도시와 농촌의 아동 대상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30집, pp.91-115, 2002.
- [56] 장윤옥,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조부모 부양행동과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청소년의 노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22권, 제2호, pp.191-207, 2002.
- [57] 정미실, *아동, 부모, 조부모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58] 최은희, 주리애, "집단 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 변화에 미치는 효과" 심리치료, 제5권, 제2호, pp.107-121, 2005.
- [60] 최향식, 박경규, "직무불안정 지각이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18권, 제5호, pp.2365-2397, 2005.
- [61] 최혜경, 김은경, "노인부양지표개발", 미계재논문, 1998.
- [62] 하종원, "태도-행동의 일관성 연구에 대한 평가적 고찰",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9호, pp.174-198, 2001.
- [63] 한윤경, "한부모 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제13권, 제1호, 49-72, 2006.
- [64] 한정란, 이금룡, 원영희, "청소년과 노년 세대간 태도 분석: 상호지향성 및 중요도-실행도 분석모형을 기초로", 한국노년학, 제26권, 제2호, pp.381-402, 2006.
- [65] 한정란,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0권, 제3호, pp.115-127, 2000.
- [66] 한정란,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제23권, 제4호, pp.181-194, 2003.
- [67] Allport, G. W, "Attitudes, in M. Fishbein(ed), Reading in Attitude Theory and Measurement,"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pp.3-13, 1967.
- [68] Chatman, "Improving interactional organizational research; A model of person-organization fi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4, pp.333-349, 1989.
- [69] L. A. Festinger,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Harper & Row, 1967.
- [70] M. Fishbein, *Attitude Theory and measurement*, Wiley, 1967.
- [71] T. A. Ringness, *The affective Domain in education*, Little, Brown, 1875.
- [72] Winer, "A reference price model of brand choice for frequently purchase produc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3, pp.250-256, 1988.
- [73] 김남선, *평생교육방법론*, 도서출판 두남, 2002.
- [74] 김영환, 조현춘, 최광선, 진영선, 곽호완, 이동화, *교양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3.
- [75] 전성연, 김수동, *교수 학습이론*, 학지사, 2000.
- [76] 조현춘, 조현재, 이희백, 천성문, *집단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시그마프레스, 1999.
- [77] [http://www.dailian.co.kr/news/n\\_listhtml](http://www.dailian.co.kr/news/n_listhtml)
- [78] <http://www.kosis.kr/html/InterStatic>

저 자 소 개

고 은 교(Eun-Kyo Ko)

정회원



- 1982년 2월 : 조선대학교  
음악교육학과(교육학사)
- 2006년 2월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석사)
- 2007년 3월 ~ 현재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 노인복지, 심리상담

정 민 숙(Min-Suk Jung)

정회원



- 1976년 2월 : 조선대학교  
물리교육학과(이학사)
- 1988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사회사업학석사)
- 2003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노인복지